

안전벨트 또 망각...통학차 안전불감 여전

졸음운전 충돌사고로 어린이 6명 부상...인솔자조차 없어

거리 가깝다며 무사안일...잇단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세립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에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LC타워 인근 도로에서 태권도 도장 통학차량을 몰던 사범 박모(29)씨가 졸음 운전 사고를 냈다. 갑박 졸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바람에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8~10세 아이들이 앞좌석으로 쏠리면서 각각 얼굴에

타박상과 치아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날 차량에 탑승한 6명의 아이 모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벨트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인솔자조차 없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민(당시 3세)양의 사고를 계기로 9인승 이상 통학차량에는 인솔자가 동승해야 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가 강화됐지만, 교육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영세 학원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

담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과 승·하차시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솔자 배치를 꺼리고 있다. 또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학원 관계자의 말이다.

이 같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도 증가세다.

광주의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1건 등 총 37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 1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게 다쳤으며,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매년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 주월동에 사는 장현수(42)씨는 "차에 탈 때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을 탈 때 친구들과 놀

다가 안전벨트 착용을 잊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는 신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5개 자치구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7억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시선 유도봉, 보행자 울타리,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지방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총 3912건이다. 시설별로는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1850대(47.3%) ▲학원 721대(18.4%) ▲유치원 703대(18%) ▲체육시설 408대(10.4%) ▲초등학교 169대(4.3%) ▲특수학교 61대(1.6%) 등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법조계·대학·구청까지 '미투' 확산 광주경찰청장 "성폭력 혐의 땀 적극 수사"

광주경찰청이 최근 각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우공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투' 관련 사건을 내사해서 수사대상이 되면 출석요구를 해서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지역 법조계, 대학교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폭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오고 있다.

광주 남구청에서는 4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됐다.

A씨는 경제 등 업무를 보면서 여성 공무원 어깨를 두드리는 등 수시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구 감사실은 A씨의 이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직원들 호소가 잇따르자 경위 파악에 착수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감사실 측에 "친근감 표시와 격려 차원에서 토닥여줬을 뿐"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당사자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광주경찰에 미투 관련 고소·고발, 수사의뢰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투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장(총경)이, 지방경찰청에서는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수사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7명 탄 선박 전복

완도서 기상 악화로 수색 난항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께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됐다. 전복된 선박은 7.93t 어선으로 선원 7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 해경구조대, 항공기 등을 투입해 선원 구조에 주력하고 있으나, 사고 해역의 바람이 거세고 파고(최대 5m)도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병역 대상자 신체검사

지난 28일 광주시 동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혈압 측정을 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검사 대상자는 2만3000여명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사랑의집' 시설 폐쇄

"노조 와해 목적" 주장

인보성체수도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광주사랑의집'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시설폐쇄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일보 2월7일자 6면>

'광주사랑의집' 폐쇄 규탄, 거주 장애인의 일방적 분산전원 저지와 사회복지종사자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성체수도회가 시도한 '광주사랑의집' 자진 시설 폐쇄의 진짜 이유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보성체수도회는 광주사랑의집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12월부터 시설 자진폐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검찰, 상포지구 특혜 의혹 여수시청 압수수색

검찰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8일 오전 여수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인사 업무 담당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무원 휴대전화와 업무 수첩, 컴퓨터 하드디스크, 인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개발업자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를 포착했다.

개발업체 대표인 김모(48)씨와 이사 박모(40)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여수시청 공무원 A씨는 2015년 12월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 계획이 바뀌자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개발업자인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어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남여성단체 "성폭력 가해자 중징계하라" 도청앞 집회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목포여성의전화 등 전남 지역 여성·인권 관련 13개 단체가 지난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문화관광재단 조직내 성폭력 사건(광주일보 2월23일자 6면) 가해자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남도와 재단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남문화관광재단 성폭력 사건은 전형적인 성차별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상부기관인 전남도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채 사건을 재단 측에 반려했다"며 "이는 자신들의 책무와 의무를 저버린 조치이며,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전남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성폭력 사건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민감성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태를 개탄한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희중 대주교, 사제 성폭력 사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28일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한 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공개 사죄했다.

김 대주교는 이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사제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수원교구 소속 한 모 신부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봉사단의 일원이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7년여 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힘을 얻어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출소 18일만에 또 부탄가스 흡입하고 행인에 시비까지

○...출소한지 18일 만에 또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시비까지 부는 등 행패를 부렀다는 것.


○...같은 전과로 1년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한 이씨는 출소한 경찰 앞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했으며, 경찰조사에서 "부탄가스를 끊지 못할 것 같다"고 호소.

○...지난 28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모(39)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수차례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시비들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부는 등 행패를 부렀다는 것.

○...같은 전과로 1년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한 이씨는 출소한 경찰 앞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했으며, 경찰조사에서 "부탄가스를 끊지 못할 것 같다"고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912,50㎡ 건물: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1,349㎡ 건물: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91,03㎡ 건물: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7,662.4㎡ 건물: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136,20㎡ 건물: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3,104.6㎡ 건물: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2,769㎡ 건물: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619,62㎡ 건물: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596,70㎡ 건물: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환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514,40㎡ 건물: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2,756㎡ 건물: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2,319㎡ 건물: 3,998,33㎡ 지상5층 매매가: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340,4㎡ 건물: 510,09㎡ 감정가: 721,968,950원 최저가: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27,403㎡ 건물: 1,454,36㎡ 감정가: 1,706,257,600원 최저가: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2,329㎡ 건물: 844,08㎡ 감정가: 1,024,812,000원 최저가: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3,319㎡ 건물: 2,480,7㎡ 감정가: 3,024,288,500원 최저가: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3,673㎡ 건물: 3,037,52㎡ 감정가: 3,744,229,960원 최저가: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